

One pick

오늘 뭐 입지?



아이브의 장원영이 하의를 골반에 걸쳐 입는 '로우라이즈 패션'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했다. 사진출처 | 장원영 인스타그램 캡처

2000년대 강타 복고 아이템 '로우라이즈 패션' 다시 뜬다

유행은 돌고 돈다. 추억의 복고 아이템, '로우라이즈 패션'이 트렌드로 다시 올라설 조짐이다. 하의를 골반에 걸쳐 입어 허리를 길어보이게 하는 패션이다. 2000년대를 강타했던 패션 아이템을 최근 톱스타들이 선보이면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나는 로우라이즈 팬츠와 배꼽을 드러내는 크롭 티를 매치해 섹시한 매력을 드러냈다. 최근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에서 그는 잘록한 허리선을 과감하게 뽐냈다. 그의 SNS에는 로우라이즈 디자인의 트레이닝팬츠를 애용한 모습이 수두룩하다.

신인걸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도 로우라이즈 패션을 주로 선보였다. 화려한 비즈 장식이 달린 재킷과 로우라이즈 스커트를 함께 입었다. 허리 라인을 은근슬쩍 드러내며 귀여우면서도 독특한 느낌을 살렸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이름을 알린 배우 이유미도 로우라이즈 팬츠와 코트를 조합해 개성 있는 패션을 완성했다.

꼭 허리를 노출할 필요는 없다. 소녀시대 윤아는 길이 가 긴 데님셔츠를 로우라이즈 미니 스커트에 받쳐 입었다. 발랄한 느낌을 강조해 봄에 따라 입기 좋은 '캠퍼스룩'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한민규 기자 slapspe@donga.com

영화 '뜨거운 피'로 돌아온 정우

“수컷 느와르…매일 허들 넘듯 촬영했다”

‘범죄와의 전쟁’ 시대 건달들 이야기 평범한 삶 좇다 큰사건 말린 최수혁 미화없이 리얼하게 스크린에 녹여내 유연석·손호준과 스크린 배틀 자신



배우 정우(41)가 ‘수컷’ 느와르를 제대로 보여준다.

23일 개봉하는 영화 ‘뜨거운 피’(감독 천명관, 제작 고래픽쳐스)가 무대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으로부터 ‘케이(K)느와르의 대가’라고 평가 받은 김언수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는 90년대 초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팍팍해진 삶에서 벗어나고 돈을 벌기 위해 부산 구암으로 몰려든 건달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낙후된 구암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그 시대 말바다 ‘건달’들의 몸부림을 미화하지 않고 더욱 리얼하게 펼쳐내 눈길을 끈다. 특히 영화의 중심에 선 정우는 ‘비열한 거리’ 조인성, ‘해바라기’ 김래원,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하정우 등을 이어 대표적 한국형 느와르를 대표하는 얼굴로 우뚝 설 전망이다.

● “허들 뛰어 넘듯 치열했던 촬영”

구암의 작은 호텔을 경영하는 사장 밑에서 온갖 잡일을 처리하는 구암의 실제 최수혁 역을 맡았다. 평범한 삶을 꿈꾸며 건달 생활을 청산하고자 하지만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인물은 지금까지 연기했던 그 어떤 캐릭터보다 표현하기 어려웠다.



영화 ‘뜨거운 피’의 주역인 배우 정우가 16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시사회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씨네그루(핵)카디언엔터

현하기 어려웠다.

“극적인 일과 감정을 겪는 인물이니 만큼 연기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하루하루 허들을 뛰어넘는 느낌을 받았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

하며 준비했습니다. 촬영 전날 늘 모든 장면을 여러 버전으로 준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영화인 촬영지인 부산이라는 공간만큼은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궁정

적인 에너지”를 전해줬다. “고향이자 오랜 시간 자라왔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를 만날 때마다 늘 반갑고 감사해요. 특히 이번 영화는 부산에서 촬영 분량이 80%라 좋았죠. 치열하게 연기하느라 기대와 달리 친한 친구들도 많고 가족도 있어서 여유 있게 촬영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부산 그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 있었죠.”

● “건달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접근”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분명한 분위기”가 작품을 놓칠 수 없게 했다. 시나리오를 읽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을 두드리고 끌어당겼다.”

“제가 느꼈던 그 분위기를 스크린에 옮기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달영화라는 타이틀에 갇히지 않고 주인공을 한 명의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려 했죠. 조직원의 한 사람, 숨기고 있다가 결국 분출되는 인간의 본능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전히 명작 드라마로 회자되는 ‘응답하라 1994’에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들과 스크린 대결을 펼치게 됐다. ‘뜨거운 피’에 이어서 한 주 차이로 극장에 걸리게 되는 유연석 주연의 ‘배니싱: 미제사건’과 손호준 주연의 ‘스텔라’가 힘든 극장에 힘을 불어넣어주길 바랐다.

“비슷한 시기에 ‘응답하라’에 함께 했던 친구들과 주연작을 내놓게 되니 기뻐요. 코로나19로 영화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맞았는데,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세 작품이 관객들에게 다가갈 것이라요.”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BTS, 3년 연속 그래미 무대 오른다

내달 시상식 공연 아티스트 확정
베스트 팝듀오 수상 기대감 키워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스에서 3년 연속 공연한다. 2020년 빌 나스 엑스와 합동 공연으로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 처음 섰던 이들은 지난해 단독으로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펼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이하 한국시간)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는 다음 달 4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리는 제64회 시상식의 공연 아티스트 명단을 15일 발표했다. 방탄소년단을 포함해 올리비아 로드리고, 빌리 아일리시, 릴 나스 엑스 등 팝스타 등이 명단에 올랐다.

그래미상 시상식은 미국 팝 음악계에서



‘가장 큰 밤’(Biggest Night)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무대다. 방탄소년단은 2년 전 빌 나스 엑스와 합동 공연으로 그래미 데뷔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지난해에는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로 단독 무대를 꾸며 전 세계 시선을 사로잡

았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후보로도 상을 노리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가수 처음으로 해당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 문턱은 넘지 못했다. 하지만 ‘버터’가 전 세계 차트를 휩쓸며 거두며 ‘다이너마이트’의 성과를 훌쩍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인다.

‘버터’는 지난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통산 10주간 정상을 차지했다. 빌보드 64년 사상 10주 이상 1위곡이 ‘버터’를 비롯해 40곡뿐이라는 점에서 수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프리미엄 치즈와 프리미엄 콜라겐의 조합

동원 콜라겐치즈 하나면 이너뷰티와 건강한 간식의 끝!
좋은 품질의 콜라겐! 영양적으로 증명된 치즈!

평상시 다이어트나 개인관리에 관심이 많은 현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콜라겐 치즈로 쉼 시간이나 부족한 분들에게 하루 한 포 컨셉으로 치즈의 깊은 맛과 품미로 포만감을 함께!
맛있고 신선한 치즈와 콜라겐을 제공, 동원의 믿을 수 있는 생산관리로 품질 및 맛을 보장!!

부드러운 식감! 호주산 크림치즈	평균 분자량 500달톤 피시콜라겐 6.6% 함유
언제나 간편하게! 하루 1포 15g 스틱	건강한 칼슘 함유! 덴마크산 우유칼슘



이럴 때 함께 해요!

- * 이너뷰티도 맛있게 챙기고 싶을 때
- * 부드럽게 콜라겐을 섭취하고 싶을 때
- *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싶을 때